### 보험설계사 남편, 보성서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 22억 보험금 노렸나… 경찰 수사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죽인 '폐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회사 직원인 남편은 부인이 사망할 경우 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다. 경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보성경찰은 26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회사 직원 이모(39)씨를 거주지인 순천에서 검거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밤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간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처리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 이씨의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밤 11시께 자녀 2명이 잠들자 자신의 부인(35)을 조수석에 태워 집을 나서 순천~영암 간 고속도로 갓길 졸음쉼터에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 있던 수건으로 뒷좌석에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부인이 숨지자 2km 정도 차를 몰다가 도로 옹벽과 측면 쪽으로 충돌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한데다 이날 오전 실시된 부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자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학원강사, 자판기 판매업 등을 하던 이씨는 지난 2010년께부터 보험회사에 취업한 뒤 부인 명의로 수령액이 22억원에 달하는 사망·상해·화재보험 11개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서 이씨는 "순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인이 남자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해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가입은 직원으로 일하다가 하나씩 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마지막으로 부인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올 초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 '학교전담 경찰관' 호평

### 광주경찰, 27명 배치 범죄 감소 크게 기여 인원 대폭 늘리기로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호평을 받고 있다. 경찰이 학생, 교사, 부모, 배움터 지킴이 등과 함께 학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애초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경찰관 27명(여경 3명)을 학교 전담으로 지정해 배치한 후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교 주변 범죄 감소, 부모·교사 심적 안정 등에 기여해 인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담 경찰관들은 1인당 평균 12개 학교를 맡아 방문 교육을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 344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도하거나 가출 청소년을 가족에게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범죄예방교육, 자치위원회 참여, 피해학생 보호 등에 나서면서 경찰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또 호루라기형 열쇠고리 6600개를 제작해 여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호신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호신술 등 성폭력 예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다.

운림중 오모 교사는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학생들의 비위행위나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금형(54)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나주의 고종석 사건이나 광산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모두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즐기고 있었다"며 "음란물 중독의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미성년자 고용 유사성행위 업자 구속

### 북부경찰, 의사 등 손님 2명도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6일 미성년자를 고용,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한모(3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18일께부터 이달 20일까지 광주시 북구 한 지역 원룸건물 2층 7개의 방을 임대한 뒤 미성년자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방식을 유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 남자 종업원 신모(26)씨와 손님 2명을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업소를 찾았다 입건된 남자 손님 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접종 기다리는 어르신들** 광주시 동구 보건소가 26일 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노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신안 섬지역 밀도살 성행

### 목포경찰, 6명 적발

신안 일부 섬 지역에서 명절을 앞두고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신안군 자은면 한 마을에서 배모씨 등 주민 4명이 소를 밀도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암태면 한 마을에서도 박모씨 등 일가족 2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은 "밀도살하던 주민 6명을 붙잡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암태면 박모씨 일가는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섬 지역에 명절을 앞두고 밀도살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광주 금은방 절도 고교생 5명 검거

교도소에 갈 사람을 정해놓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훔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6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고교생 이모(17)군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또 이군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전당포 주인 나모(74)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수천만원 빚 고민 40대 원룸서 자살

추석을 앞두고 부채로 고민하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원룸에서 A(4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선배(6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선배는 경찰에서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아 걱정스러워 찾아갔는데,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다가 실패한 A씨는 그동안 형제와 지인들에게 빚진 수천만원 때문에 크게 고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수천만원 편취 20대 검거

인터넷 중고 물품판매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68명에게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최모(22)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자동차 휠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모두 10개 계좌를 통해 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입금받은 돈을 인출한 은행 CCTV를 확보하는 등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뒤 잠복끝에 검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 경찰 못 부르는 아이폰

### SK텔레콤 단말기 오류 112 걸면 119로 연결

최근 운영체제(OS)가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일부 제품이 112 신고전화를 119로 연결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25일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SK텔레콤으로 가입된 iOS6 사용 아이폰 4S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나 범죄 현장 등의 긴급 상황에서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오류는 아이폰 운영체제(OS)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SK텔레콤이 26일 전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애플과 협의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오류의 원인은 아이폰의 새 OS에서 112 번호를 '신호 없음(null)'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신호 없음' 통화가 119로 연결되는 것은 국제 표준 상 신호 없는 통화는 119로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여성동료 허벅지 만진 응큼남

**쌍나팔**

○…같은 직장 여성 동료에게 수차례 음흉한 농담을 건네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작거린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지난 14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동료 A(여·38)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등 최근 20여일 전부터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

○…A씨는 "동료라서 처음에는 참았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 신고했다"며 분통.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